

## 一般시스템理論(GST)과 現代組織理論

許 哲 夫\*

### <目 次>

- |                   |   |
|-------------------|---|
| I. 一般시스템理論의 主要概念들 | III. GST의 私見科學에의 適用으로서의 行動科學과 이의 組織論에 對한 意義 |
| II. 一般시스템理論과 論爭들  | IV. 要約과 結論                                  |

現代의 經驗主義 組織理論家들은 저들의 理論의 背景으로 一般시스템理論(General System Theory, G. S. T. Bertalanffy, 1950, Boulding, 1956; Buckley, 1968)<sup>1)</sup>과 行動科學(1951~1957년에 걸친 포드財團研究計劃에서 始作됨)<sup>2)</sup>을 드는데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兩大 哲學 및 理論의 背景의 共通性和 差異點을 對照 統合 및 批判的으로 評價하여 組織理論 研究에 寄與케 할 試圖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두 用語가 混用되고 있는 境遇도 적지 않은 듯 하다. 그밖에도 兩大 「패러다임」이 約束한 統合되고 受容되는 組織理論을 示唆할 程度이지(Katz and Kahn 1966; Campbell et al, 1970)<sup>3)</sup>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現代 組織論者中에서 經驗主義學派는 多樣한 古典·新古典, 實用主義 및 現象學派 社會科學者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本論文의 目的은 이와같은 問題를 다루는데 있는바, 兩大 理論의 立場이 아직도 有用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兩大 哲學의 立場이 組織研究 戰略에 어떤 意義를 갖는가를 檢討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質問은 兩大 理論이 提示하는바와 對立되는 學派의 立場을 理論的으로 檢討함으로써 解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明知大學 經營學科 副教授

- 1) Bertalanffy, I. Von, G. Hempel, R. E. Bass and H. Jonas. General System Theory: A New Approach to Unity of Science, in Human Biology, Vol. 23, pp.302~361, 1951  
Boulding, Kenneth E. Boulding, General Systems Theory, The Skeleton of Science, Management Science, 2, 1956 pp.197~208.  
Buckley, Welter,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Prentice-Hall, Inc, Englewood New Jersey, 1968.
- 2) Berelson, Bernard, The Behavioral Sciences Today, Harper Torch-Books, 1963.
- 3) Katz, Daniel and Kahn, Robert L.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Inc. 1966  
Campbell, John P. Dunnette, Marvin D., Lawler, Edward E., and Weick, Karl E., Managerial Behavior,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McGraw-Hill, 1970.

## I. 一般시스템理論의 主要概念들

故 Ludwig Von Bertalanffy (1972)가 一般시스템理論의 哲學的 立場을 「아리스토텔레스」의 絕句인 “總體는 그 構成要素의 總和보다 더 크다”를 引用함으로써 適切히 表現하였거니와 그는 形而上學的 平面에서만 論하지 않고 같이 附記하였다. 우리가 強力히 強調하여야 할 事實은 總體나 <시스템>의 編成의 秩序는 分離해서 考慮하는 構成要素를 超越한다는 事實은 形而上學的의도 아니요, 神人 同形同性說(擬人觀)의 迷信도 아니요 哲學的 空論도 아니다. 이것은 觀察를 통해서 얻은 事實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有機體나, 社會集團이나 原子를 살펴볼때 까지도 늘상 마주치는 일이다.” 그에 依하면 十六世紀의 科學的 革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敘述의 形而上學的 宇宙觀을 「데카르트」와 「가릴레오」의 數學的 實證主義的 立場으로 바꾸어 놓음으로 이루어졌다. 「데카르트」의 方法叙說의(Discourse de la Methode) 第二格言은 “모든 問題를 可能한 限 最大의 分離可能한 單純要素로 쪼개는 것이며” 또한 「가릴레오」 科學의 分離方法도 複雜한 現象을 基本的인 要素와 過程으로 分離하고 縮少(還元)하는 것이었다. 허나 「버타렌피」는 強調하였다. 이와같은 方法은 觀察하는 事象이 分離可能한 因果律의인 사슬로 얽혀져 있을 때에는 即 두개 또는 數個의 變數間의 關係일적에는 아주 잘 적용이 된다. 物理學이 엄청난 成功을 거두고 그 結實인 技術의 밑뿌리에는 바로 이와같은 關係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恒常 많은 變量의 問題는 未決인 채 남아 있었다. 이것은 力學의 三體의 問題(Three body problem)이었는데, 有機的 生命體의 組織이나 原子의 境遇에도 單純한 陽子 및 自由電子 水素體系에 關한 限 事態가 惡化되어 있었다.<sup>4)</sup> 그에 依하면 傳統的으로 科學者들은 多變量의 問題를 두가지 形態로 다루려고 하였으니, 1. 人間이 만든 機械와 比較하는 것, 2. 秩序의 概念化를 偶然的 產物로 보는 것이니 예를들면 「데카르트」의 動物機械同一說(Dete-machine)과 「라메트리」의 人間機械同一說(homme-machine)과 「다윈」의 自然淘汰 適者生存說같은 것이다.

「버타렌피」는 進化力學의 構成이 無作爲의 偶然性的의 概念으로 把握하는 것은 自己矛盾的이며 「다윈」의 適者生存이나 差別的再生産이란 論理는 自己維持「시스템」을 說明하기 爲하여서는 循環論理라는 誤謬를 범하게 되니 「生存競爭에 뛰어들기 爲해서는 自己維持「시스템」이 先行해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에는 高度의 選別價値나 差別的 再生産이 優勢하게 된다.」고 論하고 있으니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論爭式이 되어 버렸다. 그는 또한

4) Bertalanffy, Ludwig Von, The History and Status of General Systems Theory i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72 p. 408.

5) op cit p. 409.

自身の 初期著書(1920)에서 引用하여 「시스템」의 概念이란 構成要素의 複雜한 交互作用이라고 說明하였으니 生物體의 基本的 特性이란 이의 組織性에 있으니 從來의 單純構成要素와 그 過程을 研究하던 방식으로는 그의 核心的 現象을 完璧하게 說明할 수 없다.” 여기에는 要素間의 調整과 過程을 包含하고 있다. 더구나 高等生物體의 行爲는 要素特性의 總和나 隔離된 要素行爲의 總和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다.<sup>6)</sup> 「애나톨 라포포트」(Anatol Rapoport 1968)도 「버타렌피」의 總體主義에 立脚한 有機體的 生物學과 社會科學의 隣接科學의 統合을 主張하는 立場을 支持하고 傳統的 科學方法論의 原子主義의 一方向性的 缺陷을 指摘하였다. (數學的) 等式의 言語와 日常言語의 因果性的 關係는 한쌍의 變數이외의 모든 變數를 一定하다고 봄으로서 成立이 될 수가 있었다……. 常識上的 因果關係는 이와같은 等式에 包含되었는데 (觀察對象의) 變數以上은 一定하다고 (不變한다고) 想定하고서 演繹되었다. 따라서 모든 因果關係가 綜合되어 주어졌다고 想定하고 나면 모든 關係는 급방 들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sup>7)</sup> 그밖에도 그는 原子主義的 論理가 “生物科學이나 人間行動 및 社會機構 研究에는 限界가 있는 것인바, 生物體가 物理的 存在임을 考慮한다해도 마찬가지 이다.”<sup>8)</sup>라고 主張하였다. 그도 「버타렌피」의 寬容性에 立脚하여 物質主義的 經驗主義가 窮極의으로는 有効하니 生物有機體나 社會機構는 自體의 環境과 「에너지」 및 物質의 交換關係에 들어가 있으며 電氣의 場과 같은것을 擴散하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고는 自認하면서도 附言하였다. “生物現象을 物理科學의 研究範疇에 包含시키지 않는 主要한 理由가 있으니 이와 같은 方法論을 生命의 過程에 適用하는데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sup>9)</sup> 그 이유는 總體를 傳統의 一次元的 原子主義로 다루어 모두 合하여 놓아도 總體의 完全한 像에 到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關係는 그의 다음말에서 分明해진다. 『시스템理論的인 立場이 物理學에서도 나타나는바 問題는 그들의 「시스템」的인 接近法이 分析的 方法에서 直接 導出되어지니 두 方法論이 延長線上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物理學的 「시스템」이 大體로 簡單하고 構成要素間의 關係로서 把握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포포트」는 순진한 人道主義者인 現象學者들처럼 抽象的인 總體主義를 主張하거나 初期의 生氣論者들처럼 物理理論家들이 目的論을 다룰 수 없다고도 主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物理科學이 物理現象을 目的論을 빌리지 않고서도 充分한 說明을 할 수 있으며, 또한 目的論이란 生物體와

6) op cit p. 409.

7) op cit p. 410.

8) op cit p. 411.

9) Rapoport, Anatol's Foreword in Walter Buckley's Modern Systems Research for the Behavioral Scientist, Aldine Pub. Co., Chicago 1968 p. xiv

10) op cit p. xiv

11) op cit pp. xiv-xv

12) op cit pp. xv-xviii

實體間的分離點이 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도 人間行動을 理解하려면 意識的 및 無意識的目的에 對한 概念이 必要하며 環境이나 狀況에 따른 類似 目的指向的 行動을 生命體가 아닌 社會「시스템」에서도 認定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스템」은 物理的 事件에 比較해서 獨特한 面이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가 強力히 主張한 바로는 物理科學의 統合이 아주 成功的으로 이루어졌고 아직도 進行中에 있으며 그 이유는 物理學의 方法論에서 찾을 수 있는바 같은 論理로서 生物科學과 社會科學의 統合은 一般 「시스템」理論이 示唆하는 方法論을 써본으로써 可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sup>13)</sup> 특히 그가 主張하는 一般「시스템」理論은 未來學的인 뜻이 남겨있어 注意할 必要가 있다. 第一次産業革命의 밑바닥에 깔린것은 「에너지」를 한 形態에서 다른 形態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熱機關은 그와같은 「에너지」轉換으로 이루어져 있다. 燃料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統制된 燃燒의 形式을 거쳐 熱의 형태로 풀려나서 두개의 「시스템」間的 溫도의 差異를 이루게 된다. 第一次産業革命의 結果로 人間이나 動物이 하던 機械動作的인 作業을 人工的으로 만든 「엔진」에 의해 對替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바와 같은 代替는 人間에게 可用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增加시켰을 뿐만 아니라 人間社會의 組織을 뒤바꾸어놓는 엄청난 結果에 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第二次 産業革命은 「에너지」를 處理하는 것이 아니라 情報을 處理하는 機械의 出現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이 技術의 來源은 第二次 世界大戰中 軍事的인 問題를 解決하려는데서부터 오게 되었는데 새로운 軍事技術의 必要에 따라 極히 高速의 自動計算機械가 出現하였는바, 엄청난 量의 情報을 迅速히 處理하여서 適切한 決定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아울러 開發된 計器는 修正의 原則에 立脚하여 作動하는바 現在 發生하고 있는 結果를 進行中에 修正을 加하는 것이다. 이 計器는 現狀態를 미리 決定된 「目標」狀態와 比較하여 「觀察된」 差異를 調整하는 作動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14)</sup> 이와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마스 S. 쿤」(1970)<sup>15)</sup>의 「패러다임」危機라는 理論과 같은 脈絡에서 본다면 社會科學의 統合理論에 對한 必要가 수증이 가고 또 社會科學과 生物科學의 統合에 對한 努力에도 이해가 가는 것으로 보다 폭넓은 道량으로 學問의 獨時性和 地域主義를 버릴것을 主張한 「케네스 E. 볼딩」(Kenneth E. Boulding 1956)에서 엿보인다. 그는 潛在的 學問統合의 次元 또는 構造를 提示하여 多樣한 次元의 分科科學의 調整과 活潑한 交流를 構想하였다. 「보울딩」은 기본적으로 「버타렌피」의 開放 「시스템」理論을 從來의 機械論的인 立場에 反하여 支持하였으며 이리하여 高度로 細分化된 分科科學의 相互理解와 統合을 向한 動態的 交互作用을 指向하였던 것이다. 그가 提示한 「시스템」分類法이나 位階次

13) Bertalanffy Boulding, Buckley et al.

14) op cit xviii-xix

15) Kuhn, Thoma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 of Chicago, 1970

16. Rapoport op cit

元은 아래와 같다.

첫째, 次元은 宇宙의解剖와 같은 靜態의인 構造의 次元이다. 두번째 次元은 單純 動態의 「시스템」으로서 時計와 같이 미리 決定된 運動을 한다. 세번째 次元은 統制構造 또는 「사이버네틱」(人工頭腦) 「시스템」으로써 自動煖房制御裝置와 같이 自己調節裝置가 있는 것이다. 네번째 「시스템」은 自己維持의 開放體制로써 이와같은 有機體는 여기서부터 生命이 없는 「시스템」과 分離된다. 다섯번째 次元은 發生的 社會的 水準으로 植物같은 것이다. 여섯번째 次元은 動物의 「시스템」으로 移動성이 높고 目的論的 行動과 自覺을 한다. 일곱번째 次元은 人間の 水準으로 個個가 自覺을 하며 象徴과 言語를 驅使할 能力을 갖는다. 여덟번째 次元은 人間組織의 社會的인 體制로써 「메세지」의 意味와 內容 및 價値體系의 本質과 範圍를 考慮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歷史的 「이미지」의 保存 傳達이 可能하고 藝術, 音樂, 詩等 纖細하고 複雜한 人間感情의 象徴化도 可能해 진다. 아홉번째의 次元은 窮極的이고 絕對的이며 避할 수 없고 不可知의 超越的 「시스템」이다. 「보울딩」이 이와같은 科學骨格의 構圖를 提示한 것은 專門學問의 連續성과 統合 및 交流의 妥當性의 程度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버타렌피」(1972)는 이와같은 「보울딩」의 理論을 支持하고 美國精神分析學會에서 發表한 論文, “一般시스템理論과 精神分析學”에서 引用하였다. (1954) 主要機能은 (1) 多樣한 學問領域의 模型, 法則 및 概念의 類質同像을 調査하여 한 領域에서 다른 領域에 轉換하는데 有用한 도움이 되도록 하며 (2) 適切한 理論的인 模型이 없는 領域에 理論的인 모델이 開發하도록 도움이 되며, (3) 다른 領域間에 理論的인 努力이 重複이 되는 것을 最少化 시키며, (4) 專門家間의 意思疎通을 增進시켜 諸分析科學의 統合을 期한다.<sup>17)</sup>

## II. 一般시스템理論과 論爭들

「아나톨 라포포트」(1968)는 자주 學論되는 新生氣論的 疑問, 즉 生命이 없는 社會制度나 組織의 研究에 有機體의 生物學의 類推가 可能한가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응수하였다. 비유적 思考方式은 人類가 概念化의 能力을 獲得한 歷史만큼 오래된 思考形式으로서, 類推論이나 目的論은 社會現實에 關한 知識의 發展을 爲해서 치루지 않을 수 없는 高貴한 代價로 보아야 한다면 언젠가는 보다 精巧한 理論에 依해 代替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같은 並行 論理의 例가 物理科學의 歷史에도 찾아볼 수 있으니, 보다 概念化와 理解를 容易하게 하기 爲해 類推法을 活用하였으니 萬有引力과 사과와 落下같은 例라고 말했다.<sup>18)</sup>

17) Boulding, Kenneth E. (1956) puoted in Buckley ibid pp. 6~8.

18) Rapoport op cit

19) op cit

그러나 그도 寬容主義의 傳統에 立脚하여 지나치게 原子化된 經驗主義的 代案을 警戒하였으니, 많은 分科學問과 副次分科學問(學派)과 專門分野가 繁盛하니 科學界가 조각져서 相互隔離된 領地에 갇히시 시로 意思疎通을 하지 못할 威脅을 받고 있다. 이는 GST에 對한 沒理解에 起因한다. 또한 科學이 “發見”의 눈사태를 이루어 總體로서의 知識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한 뿐 아니라 知慧는 減할여지도 없게 되어 마치 벽돌을 아무리 山積해 놓아 봐야 聖堂이 지어지는 것이 아닌 危險을 담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루드빅 폰 버타렌피」(Ludwig Von Bertalanffy—1962)는 一般시스템理論에 對한 批判이 誤解에서 온것이라면서, 論理實證主義者 「벅」(Buck)의 質問,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結論이 무엇인가?” “不透明한 類推나, 神秘主義+ 形而上學이나 生氣論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등에 對해서 이렇게 答하고 있다. “아무말도 할것이 없다. 謙虛한 經驗主義的 實在論밖에는.” 이렇게 經驗主義的 現實性의 存在論으로 응수하고 있다. 「버타렌피」가 主張하는 바에 依하면 그와같은 疑問은 一般「시스템」理論에 對한 誤解에서 오는 非同理論의 目的은 傳統的 科學으로 다룰 수 없는 實體에 對한 理論을 樹立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依하면 物理科學은 多様な 方法과 說明과 類推論의 模型이 많지만 物理科學者들이 「패러다임」의 定立에 成功하고 科學統一에 成功한 것은 同一한 認識論에서 導出된 方法論群을 共有했거나 意見의 合致를 보기 때문이다.

그도 一般「시스템」理論이 現在 不完全한 것은 承認하면서도 同理論의 強點으로는 統一된 方法論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 또한 多様な 分科科學의 努力의 二重化를 避해 單一한 公式의 論理體系가 科學의 簡潔性(Parsimony)의 機能을 充足시켜 준다.<sup>20)</sup>

「카마리트」(Kamaryt) 學派의 世界觀에 關한(Weltanschauung) 批判은 「버타렌피」에 依하면 開放「시스템」理論構成의 構造의 形態論上의 側面을 過少評價한데서 오는 것으로 써, 「시스템」理論이 生命과, 起源과 進化 및 構成과 過程의 矛盾을 解決해주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理論은 形態論과 生體論을 辯證法的 構造와 機能의 統合論理로서 다루어 주며 差異點의 綜合과 研究의 補完의 關係를 맺어준다.

「버타렌피」의 立場은 基本的으로 寬容主義와 統體主義로써 研究方法論上의 問題와 哲學 및 理論上의 問題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認識論上의 공격인 生物學的 開放體制의 “質的 特殊性의 無視”와 化學力學의 特殊性이란 問題에 對해서 「버타렌피」는 「시스템」理論이 部分의 特殊性을 다루지 않고도 總體의 問題를 다룰수 있다는 總體主義的 立場에서 응수하면서 本論이 現在까지의 科學界가 갖고있는 原子論傳統의 個個構成子(構造)의 特殊성과 各過程까지도 다루어준다고 말하였다.<sup>21)</sup>

20) Bertalanffy in Buckley ibid pp.19~21.

21) op cit p.21.

兩分法이나 形態論과 生體論의 矛盾說을 主張하는 一貫性이 없거나 折衷的인 現象學者들은 論理實證主義者들의 理論을 빌리기도 하면서 人道主義와 實用主義를 混用하기도 한다. 興味로운 것은 生物學者 R. W. 「제라드」(Gerard)는 (1957) 現象學 및 本體論의 어휘를 써가며 開放體制理論을 辯護하고 있는 것은 「펠지움」의 「노벨」受償者인 物理化學者 「일리아 프리고기네」(Ilya Prigogine) 博士와 같다. (1978)「제라드」는 實體란 偶然的 發生物이 아니고 오히려 “本體와 行爲間의 裂開(Cleavage) 그리고 客觀性和 主觀性的 틈바구니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고 說得性있게 主張하며 “次元이란 興味の 本質, 그 몇가지 特性, 對象의 階級이나 特性이라고” 말하고 있다.

成就(Becoming)란 歷史거나 正規的 變化이며 行動(behavior)이란 規制이며 存在(being)란 組織으로서 多變數의 交互作用 또는 相互影響을 끼치는 關係라고 보고 있다. 「제라드」는 또한 그 結果로 나타나는 것이 論理實證主義者가 말하는 單純 加法的 關係가 아니라는 것이다.<sup>20)</sup>

여기서 附記해야될 事實은 現代 總體主義的 現象學者이며 超巨視理論家들은 基本的으로 一般「시스템」理論을 多樣한 程度에서 떠받들고 있는 行動科學者들을 實證主義者요 心理學的 縮小主義者(還元主義者)라고 烙印을 찍어 非難하고 있는 點이다. 이들의 主張은 「버타렌피」가 거론하고 있는 問題들을 誤解하고 있는데서 由來하였으며 그 主張에서 一貫性이 없는 概念을 混用하고 있으니 (1) 그들의 開放體制立場을 實證主義라고 공격하면서도 論理實證主義的因果律의 論理를 쓰고 있는 것이다. (2) 그들이 「시스템」理論家를 縮小主義라고 主張하는 것은 잘못 理解하고 있는 概念의 要約에 依하며, 그 過程에서 그들도 縮小主義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3) 그들이 提起하는 本體論的인 問題는 쉽게 풀리니 社會的 制度나 組織體를 經驗論的 實在인 것을 考慮하면 充分한 것으로 이와같은 것이 그의 經驗論的 實在을 받아들이는 것을 拒否하는 사람들에게도 影響을 미치지 때문이다. (1) 現象學者들은 主觀的 人間의 交互作用으로 이루어지는 社會現象의 研究에 客觀性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量的 研究에 該當하는 統計學的方法은 社會關係의 質的 側面을 다룰수 없으며 社會現象에는 當事者의 意圖를 그대로 밟는 民俗方法論과 省察的 方法論만이 適用될 수 밖에 없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그들이 主張하는 間主觀性이란 近代 行動科學的 技法에 充分히 反映되어 있고 또 簡潔性의 原則때문에 資料의 一般化를 極히 限定하고 있다. 現代의 發展한 統計學的 技法은 量的 側面뿐만 아니라 質的 側面도 充分히 다룰수 있게 發達하였고 계속 發展하여 가고 있다. 民俗學的 省察法이란 洞察力은 있으나 같은 現象을 다른 學者가 研究하면 다른 結果가 나타나는 秘敎的인 側面이 있는 反面에 統計學的 技法은 資料로부터 推理過程까지가 公開되어 있고 公式化되어 있어 그 過程上의 問題가 即時 露出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統計技法은 「에이브라함 케푸란」(Abraham Kaplan, 1964)이 主張하는 統計

的 要約方法이며 高度의 未來學의 意義를 갖는 “再構成 論理”(logic reconstructed)이고 在來의 “日常論理”(logic-in-use)와 對比되겠다. 또한 留意할 것은 現象學者를 包含한 모든 現代科學界가 論理實證主義의 影響을 歷到的으로 입고 있다는 事實이다.

(5) 年老한 現象學派와 人道主義 志向의 社會科學者들은 社會現象研究에 「컴퓨터」와 統計學를 活用하는 것을 實用主義的이라고 輕蔑하고 있는 바 이들의 皮相的인 印象은 空想小說에서 어리석은 人間이 「컴퓨터」에게 質問을 던지면 대답이 나오는 것을 聯想하는 듯하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고 「컴퓨터」를 社會現象 研究에 活用하는 過程은 甚한 複雜하며 아직도 完壁하다기 보다는 實驗段階에 있다. 그들의 印象은 經驗主義의 陳營의 사람수나 헤아리는(Nose counters) 初步的 統計技法使用者에는 該當되었고 또 一時的으로 經驗主義研究를 遲滯시키지언정 그 거센 물결을 永遠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6) 現象學派들의 行動科學에 對한 공격은 誤導되었고 또 그릇되게 概念化된 것이니 그들은 行動科學을 過激한 行動主義者들인 生理的 心理學者들로 誤解하고 있다. 行動派 心理學者들이란 「파브로브」, 「왓트슨」과 「스키너」의 系譜를 이어내려오는 學派이며 心理的 「시스템」에 懷疑的이었고 微視開放 「시스템」인 生物體의 物理的 隣近環境의 操作을 通해 生物體의 行動修正을 試圖하였던 것이다. 惡名 높았던 「스키너」도 事實上 有史以來의 教育方法인 信賞必罰을 새로운 節次와 用語로서 꾸려 놓은데 不過하다. 여기서의 問題는 原子論과 總體論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開放「시스템」立場의 寬容性은 多變數接近法으로 原子論의 嚴密性을 維持하면서도 同時에 總體論의 條件을 充足시키고 主觀性과 客觀性을 極히 精巧한 經驗主義에 立脚하여 分離하여 다룰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考慮해야할 事項은 많은 行動科學의 技法에 對한 非難이 科學界에서 傳統的으로 驅使하던 文言體로서 論理實證主義에 의해 오래 다듬어진 分析主義的 論理體系와 시스템理論과 함께 擡頭되는 數學的 論理體系間的 乖離에서 起因한다고 보아지는데 脫產業社會 또는 二次產業革命의 特徵은 生命의 樣式 또는 細織體의 產出物과 過程이 더욱 知識集約的이 되고 또 今世紀末이 知識 및 情報의 爆發의 時代이기에 龍大한 情報의 正確迅速한 處理를 爲해 「컴퓨터」와 統計的 技法은 안쓸래야 안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行動科學에 對한 誤解에는 一部 行動科學者의 잘못도 있으니 그들은 이와같은 공격에 冷笑的 反應을 보이고 科學主義와 原子論의 應手만을 하였는바 이것은 바로 一般「시스템」理論家들이 極力 避하고저 했던 것이었다. 卽 知識의 聖堂을 짓기 爲한 벽돌이었지 單純히 發見이라는 벽돌관을 그저 쌓아 놓기 爲한 發見의 沙汰는 아니었던 것이다.

「페리 S. 뉴만」2世(Perry S. Newman Jr. 1972)는 一般시스템理論에 對한 非難이 主로 社會學界에서 나오느냐 이는 「시스템」理論과 「파슨즈」의 構造機能主義가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社會葛藤理論과 社會變化理論을 主唱하는 進步的 社會學者들은 科學的으로 目的論의 研究가 어렵다는 問題를 擧論할 畧단 아니라 “分明히 內包된 哲學은 保守的 偏見을 갖고 「시스템」의 維持와 秩序를 指向하지 變革을 指向하지는 않는다”고 「데이비스」(Davis 1967)를 引用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機能主義를 批判하고 있다.

『機能主義를 適用하는 者의 本有的 政治性向이 前提되는 바, 이 理想鄉的 合意의 概念을 社會의 根底로 삼고 있으며, 均衡, 秩序, 安定 및 計量的 成長을 強調한다. 이 理論의 前提란 無秩序와 갈등이 本質的으로 社會의 逆機能이란 것이다.』<sup>22)</sup>

여기서 分明한 것은 이와같은 批判이 文化限定的이란 點인데(Culture bound) 構造機能主義는 1950年代의 「패러다임」으로써 美國社會가 成長과 繁榮과 樂觀主義의 幸福感에 깊숙히 빠져있을 때였고, 變革爲主의 思想이 美社會學界에 나타난 때는 反戰 民權·限定成長說 公害等의 問題로 美國社會가 깊은 失望感에 사로잡혀있던 때이다. 一般시스템理論과 機能主義間에 共通性이 있진 않진 間에 「워터 벅클리」(Walter Buckley 1967)<sup>23)</sup>가 提示한 動態的으로 交互作用하는 構成要素의 構造와 過程은 安定과 變革, 原子論과 總體論을 다함께 다루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模型은 極端의 兩分論理로서 既成體制와 革命 改革間의 이데올로기的 訣別보다는 生産의 隘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留意하여야 할 事實은 變革指向의 社會學者들은 兩大論點이 內容의 論理에 더 注目하고 있고 그 論點이 過程의 論理에는 덜 注目하고 있는 點이다. 過程에 더 重視하는 「히켈」을 더 잘 읽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卽 兩分法의 論爭이 一次元的이고 原子主義에 머물러 있는 反面에 보다 精密하고 總體主義的인 一般「시스템」學者들은 多變數的 認識論에 立脚해서 “內容(構造)”과 “과정”을 同時에 考察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保守라는 “構造나 內容”은 時間에 덜 敏感하고 進步라는 “過程”은 時間의 흐름에 몹시 敏感한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여러 要因의 比較寄與나 交互作用을 잘 살펴보면 그 動力이 其의 安定이나 變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며, 그 交互作用의 過程이 協商이나 競爭에 依해 여러 複合結果에 “이르게 되며 그 配合比의 差異가 다를 뿐인 것이다. 이와같은 過程에서 또한 環境要因과의 交流關係를 함께 考察하게 됨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이와같은 多變數 經驗主義의 擡頭는 高速 「컴퓨터」의 發展과 並行하는 多變量推理統計學의 急速한 發展으로 可能하게 되었다. 同時에 많은 行動科學者들이 恒時 크게 보아 論理實證主義的 社會科學을 새로운 高速 統計學的이고 伸縮性있는 要約方法으로 翻譯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的 問題인 保守와 自由主義, 革命과 「휴머니즘」 그리고 創

22) R. W. Gerard (1957) quoted by Buckley ibid pp.51~58.

23) Newman, Perry S. Jr. General Systems Theory: An Inquiry into Its Social Philosoph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December 1972, pp.495~509.

意性的 論題들이 이와같은 새로운 움직임의 眞面目을 그대로 認識하는 것을 흐리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밖에도 자주 學論되는 問題로써 社會科學자들이 處方을 내어 놓아야만 한다는 強迫觀念인 바, 存在(Sein·What is)와 當爲(Sollen·What Should be) 인바 經驗主義者들은 Sollen과 Sein의 分離를 試圖하는 바 Sollen이란 純全히 價値觀의 問題로써 形而上學的이고 倫理的이며 또한 意味論的인 問題인바 經驗論的 論證의 對象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誤導된 批判에 對해 D. C. 「필립스」(D. C. Phillips 1972)<sup>24)</sup>가 一般「시스템」理論의 寬容性을 代表하여 말하고 있으니 “「시스템」理論支持者들이 驅使하고 있는 方法論이 在來의 機械論的 立場과 方法論을 延長하는 것이지 代替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또한 「비트란트릿셀」의 「레겔」에 對한 批判을 引用하였으니, “단일 모든 知識이 宇宙全體에 對한 知識이 꼭 되어야만 한다면 知識은 더 나올수가 없겠다.” 이말은 森羅萬象의 모든 것을 單一한 超巨大理論속에 집어 넣으려는 安易한 縮少主義(還元主義)에 對한 批判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G. S. T의 科學者는 모든 可能한 情報과 知識을 남김없이 또 아무 偏見없이 살펴보고 綿密히 檢討하며 研究者의 分析의 次元에(Level of Analysis) 立脚하여 結論에 이를 것을 強力히 主長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該當 社會科學의 分科學問과 生物科學까지도 統合되기를 期待하는 것이다.

#### IV. G. S. T의 社會科學에의 適用으로서의 行動科學과 이의 組織論에 對한 意義

여기서는 行動科學에 對하여 略述한뒤 이것의 一般「시스템」理論과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論한뒤 이 二大接近法이 어떻게 現代 組織理論에 連結되는가 하는것을 論하고자 한다.

「버나드 베렐슨」(Bernard Berelson)이 「로드」財團의 行動科學部長으로 있으면서 行動科學이란 말이 처음 公式的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有名해졌는바 그는 약대와 같이 말하고 있다. (1963)

『行動科學이라는 用語는 아주 最近에 만들어낸 말인 바 이 分野가 아주 새로운 것이다. 먼저 이 用語의 뜻과 왜 이 分野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說明해야할 것이다. ……사실 人間의 일은 너무 複雜하여 學問領域이 아무리 慎重하게 設定이 되어도 (對象을) 송두리채 담을 수가 없다.

行動科學은 三大社會科學을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바 心理學, 社會學, 人類學이며 그 分野

24) Buckley ibid p. 499.

를 純粹하게 다 包括하지는 않는다. 行動科學의 中心은 美國式 人類學, 心理學과 社會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概念에는 多少의 加減이 있다.』<sup>25)</sup>

그에 依하면 心理學과 人類學의 技術的 側面은 包含되지 않았지만 政治學, 法學의 行動的 側面; 地理學, 生物學및 生理學의 生理的 變化; 精神分析學의 逸脫行爲; 經濟學의 行爲 側面; 經營決定의 經驗主義的 分析; 歷史學的 與件下에서의 人間行動에 關한 廣範圍한 一般化學이 包括되어 있는데 그 基準은 두가지라고 하였으니; (1) 人間の 行動을 다룰것과 (2) 人間の 行動을 科學的으로 다룰것 等이다.<sup>26)</sup>

그는 社會科學과 行動科學을 區分하여, 行動科學者들은 個人이나 小集團의 直接行動을 나타내는 一次的인 資料收集에 集中하며, 이에 比해 經濟學者 政治學者및 歷史學者들은 二次的 資料나 文獻의 間接的 資料및 全數調査等을 한다”고 말하고, “人間行動을 科學的으로 다룬다고 해서 이것만이 人間の 行動을 “理解”하는 길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用語도 引用句를 달아 써야겠으니 이 用語가 얼마든지 다른뜻으로 活用될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依하면 科學的인 接近法은 客觀的인 證據나 事實의 體系的인 蓄積에 特徵이 있는 것이다.

비록 「베렘슨」이 人間行動에 關한 統一理論의 鼎立을 強調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分離된 諸科學에서 概念的인 틀과 知識을 集中시켜 人間行動의 理解를 精密性和 調査의 妥當性和 專門性을 높여 작은 規模의 測定을 하는데 깊은 關心을 나타냈다. 아마도 그도 多樣한 그리고 細分化된 여러 分野의 學際的 研究人인 것을 보아 비록 方法論的으로 原子論的이었을 지라도 認識論的으로 總體論者였음이 틀림이 없다.<sup>27)</sup>

이와같이 學際的 接近法(總體主義)과 科學的 精密性이 (分析主義) 行動科學의 二大支柱이며 行動科學運動이란 一般시스템 理論의 社會科學에서의 適用이라는 地域運動이라 볼 수 있는바 社會속에서의 人間行動에 注力을 두어 「토마스 S쿤」이(1970) 提示한 낮은 「패러다임」 形態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構築코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같은 考察은 「켓츠」와 「칸」(1966)이 社會心理學의 立場에서 社會學者들과 人類學者들과 心理學者들이 『現象의 다른 次元을 研究하는 것이 아니고...同一한 次元인 人類의 行動을 研究한다』<sup>28)</sup>고 觀察한 것만 보아도 分明해지는데 이말은 바로 傳統的인 分科科學의 領域分割과 이 分科科學의 研究對象間的 乖離現象을 指適하고 있는 것이다.

25) Phillips, D. C., The Methodological Basis of Systems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72, pp.469~477.

26) Berelson ibid pp. 1~2.

27) ibid pp. 4~7.

28) Katz and Kahn p. 5.

反面에 「무자커 셰리프」와 「캐롤린 W셰리프」(Muzafer Sherif Carolyn W. Sherif 1969)는 “學際的 調整”(interdisciplinary coordination)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分野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分科科學의 方法論에서 介在되는 問題點에서 必須的으로 解決이 되어야 하는 妥當性 檢證을 위해서라고 말했다.<sup>29)</sup>

「셰리프」夫妻의 見解와 마찬가지로 「베켈슨」(1963)이나 「캣츠」와 「칸」(1966)의 認識論이 內包하는 다른 問題點에 對한 類推를 내릴수가 있으니 行動科學의 主要 寄與行野인 心理學, 社會學과 人類學은 同一한 現象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言語, 다른 概念을 오랜 學者의 修練期間, 學問의 進化와 傳統에서 惹起시켜놓아 解決하여야할 意味論的인 問題가 있으나 이의 解決이 쉽지않아 初期의 樂觀論과(William G. Scott 1961)<sup>30)</sup> 最近의 失望(William G. Scott 1974)<sup>31)</sup>이 뒤따르는 것이다.

아마도 「로버트 두빈」(Robert Dubin 1969)이 “隣接問題分析”을(Contiguous Problem Analysis) 社會組織研究 「시스템」 理論테두리에서 행하기를 提示했을적이 이와같은 問題를 念頭에 두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多樣한 學問背景을 갖는 行動科學者들이 흔히 하는 대로 하나의 模型에 쉽게 同意하는 慣例를 批評하면서 여러개의 競爭의 模型에 依한 學際的 接近이어야 한다고 提示하였다. 그는 同一問題를 ① 하나의 模型展開의 內容과 構造에 하나의 主導的인 分科科學이나 立場에 依存하여 研究하는 것과 ② 模型의 縮少化(還元化)에서 研究에 參口하는 分科科學의 方法論과 共有變數의 最少公倍數(LDC)에 依據하는 接近法이 過去에 流行하였다고 考察하면서 그가 特히 強調한 것은 첫번째 方法에 依한 接近은 같은 問題를 한 分科科學에서 獨自的으로 集中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結果를 招來한다고 말하였으니 두번째 方式의 接近法에 依해서는 學際的 研究의 調整의 研究를 하지 않은것보다도 못한 結果가 나온다고 보았다. 그는 칼 포퍼(Karl Popper 1955)에서 引用하면서 科學의 發展은 同意에 依하지 않고 競爭에 依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強調하였다.<sup>32)</sup> 그의 첫번째 接近法에 依하면 우리나라 社會科學界가 進步의 哲學者들의 「리드」下에 行動科學的 接近 特히 精密한 計量的 接近法에 極力 低抗하여 젊은 學者들이나 學生들에게까지 美國學界의 2~30年의 研究에서 눈을 가리게 만들고 社會科學을 한다면서 亞流哲學者然하면서 早老症에 빠지게 한것은 우리 學界가 ① 大學院水準의 教育과 研究에 注力하지 못하였고 ② 高等學校教育에서 人文系와 理工系 數學教育을 差別하였고 ③ 우리나라 大學教授의 選拔과 充員 過程에서 同一 高校, 同一大學 同一學科를 強調하는 Tönnis의 「계마인샤프트」 또는 民族 産業社會發生以前의 部族社會 또는 封建社會的 副次文化<sup>50)</sup>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師弟之間

29) Sherif, Muzafer and Sherif Carolyn W.,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s in the Social Sciences*, Aldine Publishing Company, Chicago, 1969, pp. 3~20.

30) Scott, William G., *Organizational Theory: An Overview and Appraisal*,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Vol. 4 No. 1, April 1961 pp. 7~26.

이나 同窓關係에 있어 成就보다는 親交에 注力하고 高度의 同質化 壓力이 心理적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포퍼」가 主張하는 競爭 또는 批判的 交互作用 보다는 쉽게 合意하는 趨勢가 많아 쉽게 學問的 流行에(從屬 理論이나 新左派等)<sup>31)</sup> 잘 빠지는것 같다. 이와 對比되는 美國의 많은 大學에서는 이와같은 現象을 避하기 爲하여 同門教授의 充員을 1/3以內로 制限하는 制度的 裝置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데가 많다.

하여간 그와같은 學際적으로 動態的인 交互作用은 微分과 積分의 比喩를 들어서 묘사될 수 있으나 多次元的인 空間이 簡潔性和 正確성을 위하여 한번에 一個次元씩 縮少되었다가 다시 低次元의 空間이 高次元의 空間으로 統合되어 社會的 實在性에 接近하게 된다. 그러나 美國行動科學者의 研究水準이 現狀에서는 最初의 純眞한 統合에서 剝離된 후 더욱 分裂되는 것 같으며 失望한 社會學者들은 大部分 論理實證主義로 돌아갔고 少數는 現象主義로 轉했으며 心理學者들과 人類學者들은 高度의 原子主義立場으로 흐르는것 같다. 組織論 研究에서 傳統主義者들은 教育的 價値만을 強調하고 있고 一部産業心理學者들은 高度의 數學的 原子論의 塔만 構築하고 있다. 一般「시스템」理論 및 行動科學의 初期提唱者들이 主張하는 調整的 研究, 用語의 統一化, 自己流로 構築해 놓은 非自然的인 學問間的 壁의 除去, 統體主義나 包括主義가 實現되지 않고 있고 理論의 統合은 遙遠한 뿐이다. 따라서 或者는 옛날로 돌아가서 管理論의 정글을 벗어나 敎訓의 價値라도 發揮하자고 한다. (Harold Koontz 1961)<sup>32)</sup> 그러나 從來 理論인 經濟的 生理的 「테일러」의 模型이나 行政的 「페이올」의 模型이던 또는 모든 사람에게 善意를 表한다는 人間關係論的인 模型이던 모두가 機械論的閉鎖 模型일 뿐만 아니라 一次元的이고 實務者의 過去經驗에만 依存하여 社會組織의 加速的 變革과 進化에서 惹起되는 未來의 複雜性의 多變數의 現象에 留意하지 못한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一般「시스템」理論이나 行動科學의 總體主義的 哲學의 意味는 그와같은 理論이 潛在적으로 主要한 知識의 源泉이 될수있으나 未來學者들이 主張하는 增加하고 加速的인 變化의 速度에서 일어나는 斷絶·暫時性, 그리고 機械爲主의 生産樣式에서 知識爲主의 生産樣式에의 移轉等에서 「칸 탐스」의 모든 社會上部構造와 文明까지도 生産樣式에 依해 決定된 다는 「멧세지」를 部分的이나마 (決定主義的이고 絶對主義的이 아니라 蓋然性의 相對主義的으로) 들을적에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擡頭되는 形態의 文明이나 組織의 양상은 새로운 生産樣式에 副應해서 새로운 形態를 이룰것이며 그 環境은 더욱 亂氣流를 이룰것이다.<sup>34)</sup>

31) Scott, William G., Organization Theory: A Reassess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17. No. 1, June, 1974 pp. 242~251.

32) Dubin, Robert, Continuous Problem Analysis: An Approach to Systematic Theories about Social Organization, in Sherif and sherif ibid pp. 65~76.

33) op cit

34) Futurists are: Peter Drucker, Age of Discontinuity, Alvin Toffler, Future Shock, Brezinski, Between the Ages, Age of Technotronics etc.

「루드빅 폰 버타렌피」(1962)는 「시스템」理論家들이 아래 接近法이나 그 組合을 活用하기를 提言하였다. ① 經驗的이고 洞察力에 의한 接近法을 쓰던 經驗世界에서 벗어남이 없이 個別科學에 依해 쉽게 確認되는(Verify) 잇점이 있다. ② 人力을 갖춘 機械論的인 方法으로(이를테면 Ashby의) 內部 狀態에서 그 環境에 接近하는 法이다. 이것은 構成要素別 把握에서 自己制御機構에 나아가게 되며 그 結果로 內部的 差別化에 이르고 여기에 人力과 變化의 힘에 依하여 複雜性에 接近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보았다.<sup>35)</sup>

「워더 벅클리」(Walter Buckley 1967)는 社會科學史를 概括한 뒤에 「시스템」觀을 추천하였으며 비록 이의 接近이 始作에 不過하나 이 理論이 社會學研究의 主要關心事가 되어야겠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이 理論이 社會學의 主要關心事가 되어야겠으니, 社會學의 發展을 約束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 方法論으로는,

- (1) 多様な 分科科學의 用語의 統一을 試圖하고,
- (2) 巨大하고 複雜한 組織體를 研究하는 技法을 提示하고 있으며,
- (3) 斷片的인 方法보다 體系的인 接近法을 提示하며,
- (4) 社會文化的인 「시스템」의 核心部面이 情報와 「 커뮤니케이션」網의 效果的인 研究로써 可能해지며,
- (5) “實體”보다는 “關係”에 重點을 두며 過程, 變遷의 蓋然性에 注力함으로써 많은 自由度가 있고,

(6) 또한 研究運營의으로(Operationally) 限定할 수 있는 客觀的이고 非神人同形同性說的(Anthropomorphic) 接近法으로 目的志向의 「시스템」行爲나, 認識過程이나, 自覺行爲, 그리고 一般의 社會文化的 特性이나 力動性을 다룬다고 말했다.<sup>36)</sup>

「로버트 A. 니스벳」(Robert A. Nisbet 1961. 66)는 社會問題가 文化的 土台위에 터전을 잡고있기 때문에 研究法에서 問題中心의 經驗論的 接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社會組織의) 網上(Network)에 있는 行爲者의 個性化를 研究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고 보았다.<sup>37)</sup> 即 그 는 原子論的인 接近法과 總體論的 接近法이 相互排反的이기 보다는 相互補完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微視的 變數가 巨視的 變數의 結合的 模型을 傳統主義者들은 “沒批判的”이라고하나 經驗主義的 實在에 最終 審判을 求하는 本體論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適切한 表現인 것 같다.

이와같은 概念이 現在 行動科學의 研究方法의 發展水準에 비추어 볼 때 더욱 成熟해지고 現實的으로 管理可能해지는 것은 「로버트 K. 머튼」(Robert K. Merton 1967)에서인 바 그

35) Beralanffy in Buckley ibid p. 15.

36) Buckley, Walter,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p. 39.

37) Robert K. Merton and Robert A. Nisbet,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Seco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pp. 1~24.

는 “社會學的 理論이란 經驗論의 均一性이 導出될 수 있는 論理的으로 連結된 一群의 命題(Proposition)이라고 提言하였다. 그는 또한 行動科學者들이 좀 더 現實的이 되어서 管理할 수 있는 “中位의 理論” 鼎立을 目標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日常研究에서 일어나는 豊富하고 사소한 作業的 假設問에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같은 研究를 모조리 內包할 수 있는 統一理論 鼎立에 體系的인 努力을 기우려 觀察된 社會行動, 社會組織 및 社會變化에서 나타난 均一性, 모두를 說明할 理論을 세워야 한다”고 主張하였다.<sup>38)</sup>

「윌리엄 R. 캐튼」二世 (William R. Catton Jr., 1968)이 故 「조지 룬든버그」(George Lundberg)를 추모하여 쓴 글에서 行動科學을 行動派 心理學으로 誤解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現象派 社會學者들의 行動科學 攻擊의 唯一한 模型이 된 것 같다. Catton에 의하면 行動主義을 禮讚한 Lundberg의 初期 論文에서는 理論的인 (Substantive) 主題에만 注力하였으며 漸次 30年代 中盤에 들어와서 計量的 分析法이나 社會現象研究에서의 物理科學 方法의 授用에 대해서 批判的이었다. 그러나 Catton은 當時에 現代의 「컴퓨터」나 屐세한 多變量推理統計學이 存在하지 않았다는 것을 附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sup>39)</sup>

Paul Kurtz(1968)는 行動科學이 新行動主義라고 말함으로써 概念上的 誤謬를 犯하고 있는데 行動主義 心理學 生理的 心理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適切한 表現이 되겠다.<sup>40)</sup> 그의 過誤는 「시스템」理論의 目的과 方法論上的 嚴密性的 混亂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그도 行動科學의 目的이 人間行爲에 關한 分科科學의 統一이라고 본 것은 옳았는 바 人間の 生理的 行動을 包含할 적에 더욱 그러하다. 그가 아래와 같은 考察을 한 것은 全的으로 옳은 것이었다. 行動科學의 目的은 ① 分科科學間的 概念과 用語의 標準化와 ② Robert K. Merton과 Thomas H. Marshall의 樣式대로 中位의 假設樹立에 注力할 것이다.<sup>41)</sup>

그는 現象學者들이 主張하는데로 精神的 過程은 言語學的 方法으로 接近해야 한다고 同意한 것도 옳게 본 것이다. 그의 問題點이란 傳統的 論理實證主義者의 立場에서 現代의 多變量概念에 反하여 一次元的인 理論鼎立을 생각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一般 「시스템」理論과 이의 社會現象研究로서의 行動科學의 前提를 살펴 보았거니와 이것이 組織研究에 어떻게 適用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많이 引用되고 또 一般 「시스템」理論의 組織研究에 代表的인 著者는 社會心理學者인 Daniel Kutz와 Robert L. Kahn(1966)이다. 이들은 同時에 觀察되어야 할 組織體의 九個

38) Merton, Robert, On Theoretical Sociology, Free Press Paper-back, 1967 pp.39~72.

39. Catton, William R. Jr. Substantive Inquiries in Essays: Lundberg, edited by De Grazia, Alfred: Handy, Rollo: E.C. Harwood: Kurtz, Paul, Great Barrington, Mass. The Behavioral Research Council, 1968, pp.23~33.

40) op cit pp.63~85.

41) op cit p.83.

部位를 列擧하였으니 ① 「에너지」의 流入, ② 轉換, ③ 流出, ④ 循環現象, ⑤ 逆行的 熱流量, ⑥ 精報의 流入과 還流 ⑦ 安定성과 動態的 恒等性 ⑧ 差別化와 ⑨ 等終性으로 大別하였다.

그들은 組織의 模型을 役割의 體系로 보았고, 個人과 「시스템」의 交互作用을 役割模型으로 提示하여 經驗的 研究을 刺戟하였다. 그러나 社會心理學者인 까닭에 이들은 役割受容理論에 組織 內容의이나 創出의 側面을 다루지는 않았다.<sup>42)</sup>

Fremond E. Kast와 James E. Rosenzweig(1974)의 「시스템」理論에 立脚한 組織의 主要 部門은 簡單하여 流入, 轉換과 流出이며 「시스템」과 環境間의 循環的 交換作用의 對象은 「에너지」, 物質 및 情報이다. 이와같은 模型에서 出發하여 Kast 등은 組織의 內容의 主要 部分으로써, ① 目的과 價値의 下部「시스템」 ② 技術的 下部「시스템」 ③ 心理社會的 下部「시스템」 및 構造的 下部「시스템」 등이 環境의 下部「시스템」과 管理的 下部「시스템」에 얽혀 있다고 보았다.<sup>43)</sup> 그들은 一般 「시스템」 理論의 哲學이나, 傳統的 管理 理論 및 組織理論 그리고 經營科學에는 強하나 Katz와 Kahn에 比較할 때 社會心理學이나 方法論에는 弱해서 必로 「모텔」이 包括的이고 多變數的이라해도 그들의 心理學理論은 人間關係論水準에 머물러 있었다.<sup>44)</sup>

John P. Campbell 등은(1970) 아주 洞察力깊은 個人과 「시스템」의 交互作用에 對한 發見을 돕는(heuristic) 模型을 提示했는데 個人性質의 中間結果로서의 職務行爲와 指導者의 動機 그리고 組織의 目的인 利潤極大化, 生産性 및 報酬體系 등의 巧妙한 組合을 通한 傳統理論과 小集團研究와 社會心理學 理論의 結合을 이룩하여 놓았다.<sup>45)</sup>

Joseph A. Alutto(1968)와 Ralph M. Stogdill(1974)은 社會心理學理論인 「리더쉽」의 理論과 學際的 研究理論인 役割理論의 結合을 試圖하였으나<sup>46)</sup> R. J. House(1971)는 經路-目標理論에서 動機理論과 리더쉽 理論의 合致를 試圖하였다. 아직도 研究方法의 精巧성이 앞서는 社會心理學者들이 管理理論이나 社會學 理論의 構造的 그리고 巨視的 變數를 꺼리는 傾向이 있고 아직도 單一理論에 집착하는 原子主義的 경향이 짙으나 「시스템」 이론과 행동과학의 認識論에서 間理論的, 總體主義的 그리고 方法論上의 精密성과 經驗論性을 充足시키는 研究가 있을 적에 이分野의 發展이 두드러 지리라 생각한다.

42) Katz et. al, ibid

43) Kast and Rosenweig, Organization: Management, McGraw-Hill, 1974

44) Campbell et al ibid

45) Alutto, Joseph A., Role Propositions and The Analysis of Organizations, Unpublished Dissertation, Cornell Univ. 1968.

Stogdill, Ralph M. Handbook of Leadership, The Free Press, 1974.

#### IV. 要約과 結論

1) 一般「시스템」理論은 方法論과 認識論上 ㉠ 總體主義(holism) ㉡ 包括的 寬容主義(catholism)과 ㉢ 經驗主義에 立脚하여 物理科學, 社會科學의 統一과 成熟을 期하며 現象의 規則性과 總體性을 前提로 하고 있다. 社會科學과 生物學의 統合까지도 主張하고 있다.

2) 行動科學의 社會科學適用이라는 地域化 움직임으로 아직도 成熟의 餘地가 많다.

3) 科學哲學을 兩大接近法을 中心으로 다루었다.

4) 主要 現代 組織理論을 兩大接近法에 의해 批判的으로 考察하였다.

이와같은 吟味에서 導出할 수 있는 것은 모든 社會「시스템」의 普遍的인 現象인 리더쉽 役割을 中心으로 한 組織의 中位理論의 鼎立이 組織行爲의 核心的인 作業이 될 것인가 傳統的인 一方向的 因果律에서 雙務的 因果律의 模型이 바람직하며 여기에는 心理學에서 發達한 性格理論을 傳統的인 巨視理論의 變數와 함께 包含하는 것도 考慮해볼만 하겠다. 또 한 現代的 多變量推理統計學의 活用이 積極 권장되어야겠다.

近來 Osborn 等이(1980) 巨視論의 立場에서 二因果律的인 偶發性理論(contingency theory)을 展開한 것은 「시스템」理論과 論理實證主義를 中位理論의 觀點에서 包含한 것이 라 보여진다.<sup>45)</sup>

---

45) Osborn, Richard N., Hunt, James G., and Jauch, Lawrence R., Organization Theory, An Integrative Approach, John Wiley & Sons, Inc.